

[예술상을 점검한다] - 연극

연극상 이대로 좋은가?

양기찬
수원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연극상 제정에 있어서의 투명도와 계속되는 문제 제기들은 아직도 우리의 공연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 더 심도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우리의 공연 환경 자체의 발전과 개선 그리고 작품 평가의 객관성을 통한 예술적, 대중적 가치의 확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연극상 현황

연극에서의 상은 작품을 근거로 하는 것과 배우의 연기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연극상의 의의는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가는 해의 연극 공연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역할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2004년을 마감하면서 주어졌던 연극상들을 살펴 보면, 크게 2004년에 그 첫 번째 작품을 선정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의 '올해의 예술상', 이해랑 연극재단과 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2004년도에 14회를 맞은 이해랑 연극상, 2004년도에 30회를 맞은 '영희 연극상', 2004년에 5회를 맞은 '김동훈연극

올해의 예술상(연극) 최우수 선정작품 연극 '갈매기' 기획 예술의 전당



상' 2004년에 새롭게 출발한 포털 사이트 (otr)과 소극장 (어뮤징 씨어터)가 공동 제정한 '아름다운 연극인상', 역시 1회를 맞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한국본부가 제정한 '아시티지 연극상' 그리고 한국연극협회 가입단체에 한하여 수여되어지는 '동아연극상'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공연과 동시에 상을 수여하는 각종 공연 예술제에서의 포상 등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며 지원금 성격을 띠는 여러 종류의 '연극상' 들이 있다.

이러한 각종 이름과 명목으로 제정되는 연극상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연극인의 연극계에 대한 공헌을 기준으로 하여 주어지는 각종 상들과 연극의 여러 분야별로 시상되는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진 상들 즉 연출상, 연기상, 무대미술상, 희곡상 등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해에 공연되어진 작품에 대한 시상이 있다. 이러한 각종 상들이 매해 시상되지만 과연 그 상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문제는 항상 시상 때마다 문제시 되어 왔다.

본 글에서는 상의 제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물론 모든 연극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연극 '갈매기' 공연

것을 미리 전제로 하지만, 그래도 과연 어떻게 시상이 되어 왔는가를 '올해의 예술상'을 중심으로 상 제정에 있어서 많은 분야의 종사자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재검증하는 취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물론 본 글에서 지적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올해의 예술상'의 제정에 있어서 문제시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연극상 제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연극은 공연 예술이다. 즉 연극은 하나의 희곡 작품이 공연되는 것을 통해서 그 공연이 지니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생각할 수 있는 장르이다. 그럼으로 연극에 있어서 어떠한 상의 시상은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들, 연출가, 연기자, 작가, 비평가 또는 각각의 연극 분야 즉 조명, 음향, 무대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관객들 즉 연극을 문화생활로 즐기는 비전문가들의 생각 역시 어느



한도 내에서는 반영되어야 그 평가의 객관성이 있다. 물론 연극에 대한 비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 그들이 연극 공연의 생태에 대하여 문외한이기 때문에 문제시 된다고 혹자는 말할 수 있지만, 연극 공연은 관객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비전문가인 일반 관객들의 관심 역시 중요한 평가 대상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현대의 공연 관객들은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어 연극 공연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 연극 공연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안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연극 공연은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의 공연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을 지니고자 한다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일부의 주관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주어지기보다는 연극이라는 하나의 장르에 관심을 지니는 모든 참여자들의 논리에 근거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극 '갈매기' 공연

또한 이러한 논리적 배경과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기준과 합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극상들에 있어서 객관적이며 모든 참여자들이 동감할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지금 현 시점에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현 연극상들의 시상 기준은 연극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축탁된 몇몇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올해의 예술상'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탁식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부터 그 타당성과 투명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작품들의 선정 후에 일어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정 기준과 그 연극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그 연극상이 담고자 하는 의

의를 보다 더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즉 심사위원들을 구성할 때 축탁되는 전문가들이 과연 연극상이 표방하는 기본 방향에 합당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극상은 보편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그 해의 제일 가치 있었던 작품을 가려내는 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현실에 맞게 투명하다면 모든 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연극상이 표방하고 있는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심사위원들의 사회적 지명도, 공헌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령에 의존해서 축탁이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코 투명성과 객관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는 불만이 계속될 것이다. 물론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확실적인 선정 방법보다는 다양한 색채와 나이 그리고 예술관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현재 공연들의 행

연극상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문제시 되는 것은 각종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올라온 작품들을 무슨 기준에 맞추어 수상작으로 선택하는가이다. 이는 어느 연극상 제정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핵심 분야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축탁된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방향과 기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보와 상징성에 대해 그 예술적, 대중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넓은 스펙트럼의 기준과 작품이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작품 선정이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만 선택된다면, 그 작품은 소수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수상한 작품으로밖에는 인식이 안 될 것이다.

연극은 공연이 이루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연극인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며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공연을 보러 오는 일반 관객들이다. 연출가 또는 평론가 등의 연극 관련 작업자들이 공연된 작품에서의 예술성에 눈높이를 맞춘다고 한다면, 공연의 생명과 어찌면 대중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 관객들의 작품에 대한 호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 관객들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연극상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일부 반영해야만 작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무작위적인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것은 노력했다는 평을 들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노력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대한 의문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정 기준을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반 관객들 역시 정도의 차이

는 있겠지만 연극 공연을 생활화한 관객들로 한정시켜야 작품 선정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인정 받기 때문이다.

일반 관객들의 참여는 한정적이지만 전문 모니터 요원 그룹을 형성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다. 이들에게 공연 관람 할인 등의 인센티브와 자신들이 뽑은 공연이 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는 기대치를 높여준다면 아마도 보다 더 쉽게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니터 요원들을 운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 - 티켓 등의 할인을 위한 예산 확보, 참가자들의 시간 조율의 효율성 그리고 이들

연극 '갈매기' 공연



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요원 등 -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폭을 넓게 가져가지 못할 수 있는 단점들을 안고 있다. 그럼으로 인터넷 상의 공연 전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순수한 관객들의 연극에 대한 평을 보충적으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 전문 모니터 요원들의 데이터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법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하여 수상할 작품 등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시 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의 수치는 하나의 길잡이로서의 기능일 뿐 만약 이 데이터가 수상작품의 선택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즉 데이터는 작품들의 경합에 있어서 대중적 가치를 평가해 주는 하나의 잣대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둔 것이지 수상작품이 하나의 인기몰이식의 수상은 연극장에서 추구하는 대중성에 반대되는 예술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극상은 곧 대중성과 예술성이 하나의 총체적인 구조적 하나로 승화된 작품에 대하여 수상하



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작품 선정

가장 중요하고 문제시 되는 것은 각종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올라온 작품들을 무슨 기준에 맞추어 수상작으로 선정하는가이다. 이는 어느 연극상 제정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핵심 분야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촉탁된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방향과 기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작품 선정 기준은 연극상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연극상을 수여하는 데에 있어서 일단은 촉탁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상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심사위원들의 고유 영역으로 현재 받아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작품들의 일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범위는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다음의 몇몇 가상 질문들과 그 대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연극상의 제정에 있어서 보다 더 객관적이며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극장에서 제정되는 각종 상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연극 공연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라는 범위는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나라'라는 범위는

올해의 예술상(연극) 우수 선정작품, 극단 미추의 '허삼관 매월기'

작품의 선정과 그 기준은 투자액과는 상관관계를 이루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지니는 예술성과 대중성의 척도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된다. 한 예로서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올려지는 저예산 연극이 대형극장에서 제작되어 올려지는 연극보다 그 수준이 예술성과 대중적 가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선정되어야 한다.



올해의 예술상(연극) 우수 선정작품, 극단 청우의 '웃어라 무덤아', 공연 포스터

그 한계를 장소, 즉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디서 작품이 만들어졌느냐에 그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이 장소의 기준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범위의 단편적인 한계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소가 지니는 상징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동적인 하나의 열린 마당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만들어져 우리 극장에서 재공연되어지는 공연이 아닌 우리의 극장에서 관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세계 초연이 되어지는 장소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연습실/극장에서 만들어져서 외국에서 초연되어지는 우리의 작품들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극장과 관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우리의 작품' 범위에 포함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소에 대한 범위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공연이 어떠한 방법과 얼마만큼의 투자에서 이루어지는지 역시 중요한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액수의 많고 적음이 작품의 예술성과 대중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작품의 선정과 그 기준은 투자액과는 상관관계를 이루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지니는 예술성과 대중성의 척도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서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올려지는 저예산 연극이 대형극장에서 제작되어 올려지는 연극보다 그 수준이 예술성과 대중적 가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현상 역시 받아들여져야만이 공연에서의 예산의 문제가 하나의 기준적 가치 체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심도 있는 정책연구로 공연 환경 발전하기를

'올해의 예술상' 제정에 있어서 제일 문제시되었던 점 중에 하나이며, 제작자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연출되어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나의 공연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출서부터 여러 명의 합작으로 이루어진다. 연기자, 무대 연출, 조명 그리고 의상 등에 의해서 연극 공연은 만들어지는 공동 작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 중 연출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올리는 작품이 연출가 자신에게도 초연이라면 이러한 연극 시도 역시 이제는 우리의 연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 선정작품 극단 청우의 「웃어라 무덤아」



즉 우리의 무대에서 올려지는 어떠한 노력도 그것이 세계 초연이라면 그 연극은 당위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와 같은 다국적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연극을 단순하게 우리가 만든 공연으로만 축소하는 생각에 대해 재고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외국에서 온 연출가나 공연예술 종사자들이 우리의 연출가들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가 배척하기 이전에 당연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배워야만 되는 산지식인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인터넷이라는 정보 매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것들이 매일 소개되며 관객들은 세계 공연예술의 새로운 방향, 도전 그리고 시도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것,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공연만이 선정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우리의 일반 관객들에게 역시 당위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폐쇄성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무대를 폐쇄화시킬 수 있으며 공연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창의력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작품이 지니는 향수와 그 연출자의 명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선정 기준의 탈피라고 할 수 있다. 선정되는 작품이 어떠한 지명도 있는 연출가의 것 또는 명성 있는 극단의 것으로 예우 차원에서 결정되어 정해진다면 역시 연극 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선정의 기준은 명백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수상할 만한 작품이 없으면 상의 수여를 재고해 보아야 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할 대상이 없으면 하나의 연속되는 행사의 단절이라는 불안감, 예산 문제로 인한 연극상 재정 사업의 흔들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합하지 않은 작품에 상이 수여되기도 한다.



우수 선정작품 극단 청우의 「웃어라 무덤아」

이행되어야지 공헌도와 유행세에 이끌린다면 심사위원들의 촉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흔히 일어나는 나누어주기 식의 상은 지양함으로써 일반 연극 관객들에게 객관적인 판단 하에 상이 수여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몇 해 전에 이미 올려진 연극을 다시 재공연 한 것을 선정한다는 것 또는 이미 올려진 공연에 대한 포괄적인 노력, 공헌에 대한 대가로서 그 공연을 올렸던 극단에게 새롭게 그들이 올린 작품의 작품성이 떨어지더라도 상을 수여하는 것은 제정되는 연극상이 의미하는 도전적, 진취적 그리고 발전적인 의의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수상할 만한 작품이 없을 때의 문제 역시 항상 논의되어지는 문제 중 하나이다. 수상할 만한 작품이 없으면 상의 수여를 재고해 보아야 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할 대상이 없다면 하나의 연속되는 행사의 단절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산 문제로 인한 연극상 재정 사업의 흔들림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합하지 않은 작품에 상이 수여되기도 한다.

즉 수상할 작품이 없으면 그 수여될 금액을 그 해

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삭감한다는 식의 행정적 정책가들의 기금운영의 모순된 논리는 예술의 특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논리가 아직도 어떻게 예술상의 제정에 관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올해의 예술상'에서도 드러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로또' 등의 투자의 예는 그것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상할 작품이 없다면 계속 기금을 모아 조금 더 내릴 있는 상의 제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연극상 제정에 따른 문제점들과 그 개선 방안들에 대한 생각을 본 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모든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필자 역시 느끼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연극상 제정에 있어서의 투명도와 계속되는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문제 제기들은 아직도 우리의 공연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 더 심도 있는 투명성과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우리의 공연 환경 자체의 발전과 궁극적인 공연 환경의 개선 그리고 작품들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통한 예술적, 대중적 가치의 확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